투데이 칼럼

단순 말 걸기의 효과

김양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우리는 낯선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괜히 어렵게만 느껴지던 사람이 몇 번 만나면서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호감이 생기고 신뢰감까지 느껴진다. 이런 경험을 해 본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단순 접촉의 원리'라고 부른다.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가, 어떤 말을 나누는가, 어떤 일을 함께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얼굴을 마주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친근감이나 호감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의외로 단순한 측면이 있다.

말을 거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몇 번을 거듭하여 말을 걸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친근감이나 호감을 가지게 된다. 말의 내용이나 대화 유무는 관계가 없다. 말을 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을 거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마주치는 것과 비교할 때, '접촉'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 말을 거는 행위에는 '나는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어떤 말이라도 상관없다. 우선 말부터 걸고 보자. 물론, 대화할 때 두려움은 있을 수 있다. '비난 받을까?', '이해해줄까?', 혹은 지루하게 할까?' 등으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벼운 인사에서 상대의 칭찬, 상대의 관심, 즉 스몰토크의 "어떤 말이라도 상관없다. 우선 말부터 걸어라."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어떤 말을 걸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말을 걸 수 있는 화제(話題)가 적어서 고민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말을 거는 목적에 대해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알기 위해.'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해서 말을 건다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말을 걸면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인다. 미소를 지어 보일 수도 있고 시큰둥한 반응이 돌아올 수 도 있다. 그런 반응들은 모두가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정보다. 따라서 그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 있다.

말을 건다는 것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돌을 던지면 수면에 어떤 파문이 일까? 일단 알고 싶은 것은 그 파문, 즉 '상대방의 감정'이다.

따라서 굳이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고, 대화 내용에도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오늘 넥타이 멋진데."라고 말을 걸었다고 하자. 그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표정은, 답변은, 그리고 반응에는 어떤 감정이 나타나 있는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것이다.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현재의 기분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확은 크다. 말을 걸지 않았다면 그것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용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니 일단 말을 걸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반복을 통해 당신에 대한 친근감이나 호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가볍게 건넬 수 있는 스피치기법(말의 표현법 개발)에 노력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보자. 가정과 사회에서 효과적인 말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하다. 말 한마디로 평생직장을 얻은 사례, 말 한마디로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례가 많지 않은가?

무표정, 무관심보다 21C에는 감성의 말, 호감의 말, 긍정의 말로 기쁨을 주어서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들자.

독자제언

도로 위 달리는 흉기 '스텔스 차량'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어둠속에서 갑자기 차량이 나오는 경험을 해본적이 있을 것이다. 너무 밝아서 위협적인 상향등과는 반대로 한밤중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위험에 노출 되는 등 위험을 야기하는 차량,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차량을 '스텔스 자동차'라고 부르고 있다.

'스텔스 차량'들은 야간시간에 스텔스 차량의 앞에서 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런 차량들은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는 것을 깜빡하고 다니는 경우, 시동을 거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전조등이 켜졌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와 안전불감증으로 후미등이나 제동등이 고장난 사실을 신경쓰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 가로등과 건물 불빛 덕에 시야가 확보되어 전조등을 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차량은 현행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상 법규는 "밤에 또는 안개, 강우, 강설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으 등화를 켜야한다"고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1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야간운행시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스텔스 차량은 승합,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스텔스 차량'은 이러한 교통범칙금이 부과되어도 제때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고 특히 2차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텔스 차량 운전자가 되어 자칫 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고 안전한 운전습관만이 사고예방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겠다.

강정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사망률 60%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2차 사고란 고장·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뜻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10건당 6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 보다 사망률이 무려 5배에 달한다.

운행중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뒷차가 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각대의 경우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에, 야간에는 후방 200m 지점에 설치를 해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경우 삼각대 설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각성이 좋은 불꽃신호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고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면 사고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신속하게 촬영 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사고 원인 규명은 블랙박스 및 촬영한 사진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1588-2504)의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승용차, 16인이하 승합차량, 1.4톤이하 화물차)을 인근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견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교통사고 현장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서행을 유도하는 방식인 트래픽 브레이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안전행동요령을 인지하고 차량에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다닌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 설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그중에는 전북을 위한 선물 보따리도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해 도민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에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새만금 사업의 현황에 대해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로드맵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미래 구상을 때로는 먼저 말하는 강단도 보여야겠다.

전북도는 스스로의 역할 증대를 더욱 도모해야 한다. 전북도가 앞장 서서 나서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로드맵을 보여줬다해도 임기내에 속도감 있는 개발이 있을 리 만무하다. 역대 전임 대통령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름의 적당한 한계선을 긋고서 개발의 모양새를 취할 공산이 크다. 전북도의 능력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로드맵이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저번에 언급했던 것을 또 말하거니와 전북도가 청구한 내년 예산이 저번에 79%밖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다. 전북도는 더 많은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지금 도민들이 전북도에게 말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말이다. 지금까지의 새만금 사업은 거북이 걸음이었다. 맨처음 계획표에 비하면 너무 뒤처져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감 있는 추진이 목표가 돼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했던 것을 또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의 미래를 이끌 프로젝트를 키워야겠다. 고위 관계자들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에 송하진 도지사가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도됐는데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면 한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도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예산 증액으로 증명돼야 한다. 새정부도 정작 예산 편성 때는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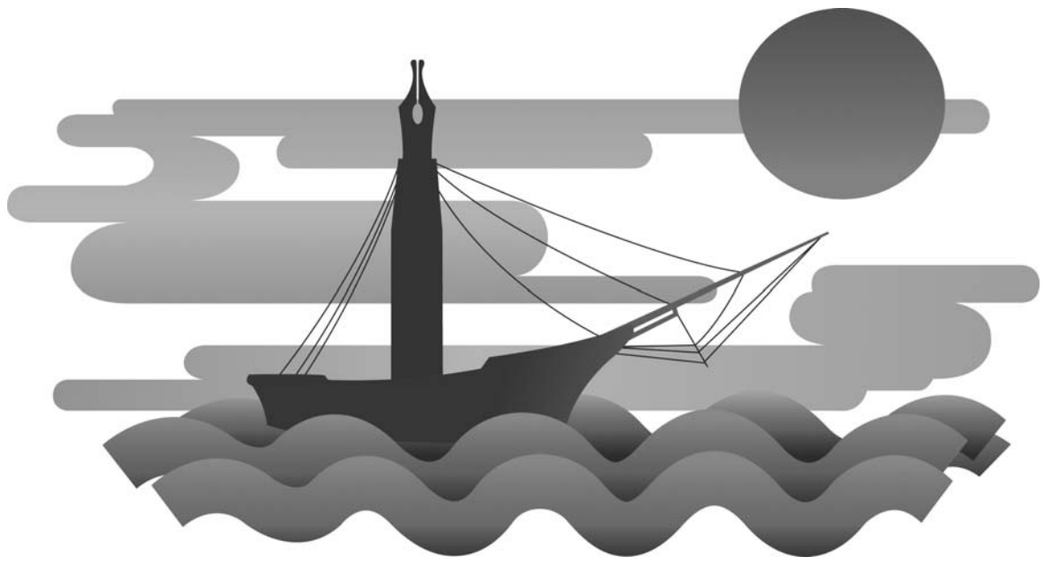
전북도는 청년 실업률 전국 1위 상기해야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요즘이다. 대통령의 취임 초기 새로운 일자리 81만 개를 약속은 두루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또 다시 밝혔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많은 대비를 해두고 있어야겠다. 전북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전북도에게 할 말이 있다.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를 어떻게들 생각하냐고 말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다른 광역시도와 경쟁하는 위치에 있다. 이 냉정하고도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진단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언론사가 카메라를 들이 대고 기자들이 현실의 문제를 짚을 때만 협조하는 척 할게 아니다. 청년 고용 열기가 식지 않도록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메이저급인 어느 신문사는 공무원 한 사람 채용에 30년 근속을 계산하면 17억원이 든다고 1면 톱기사로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그 따위 주장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 도내 취업 현실이며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청년 실업이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전북도가 때때마다 발표한 실업률의 수치에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도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결혼이나 인생설계 같은 장래 희망을 말하지 않고 있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많은 생각을 다듬고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관련해 전북 청년들의 몫을 제대로 챙기려면 그래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은 전북도의 치밀한 계획과 뜨거운 열정이 관건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다른 광역시도들보다 기민해야 한다. 일자리를 먼저 챙기기 위해서는 치고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